東大新聞

發行人 李瑄根
編輯人 鄭允武
印刷人 方又榮
主幹 宋赫
編輯部長 金澤根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㉗8131—2
本社直通 ㉗8577

每週火曜日發行

□제8회 教育問題 심포지움

非人間化 요인 教育으로 克服

지난 5日, 綜合세미나室서 開催

一線教師들 「人間化를 위한 學校教育의 課題」로 討論 진지

본교 師範大學(學長=南都祐박사) 주최 제8회 교육문제 심포지움이 「人間化를위한 學校教育의 課題」란 주제로 지난5일 오후 2시부터 본관 세미나室에서 開催되었다.

金慈奎(師範大) 교수의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움은 본교 金宗玉(師範大) 교수의 主題에 대한 基調講演에 이어, 本 主題에 대한 副主題로 康吉秀(서울대)교수 등 3名의 論文發表가 있었다.

이어 이날 오후 裴鍾根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討論에서는 李達詩(위문고교) 교사등 일선교사 및 교육계인사 8명이 討論에 참가, 學校教育의 근본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李瑄根총장은 격려사를통해 『일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지한 學術회의를 통해 人間化교육문제를 檢討하는것은 매우 긴요한 일』이라고 중요성을 밝히면서 『교육은 나무 한그루를 가꾸듯, 꾸준하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南都祐師範大學長은 인사말에서 교육문제심포지움이 8회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보고하고, 『現代의 物質文明 뒤에 도사린 非人間的인 要因들이 學校社會에도 잔재해 있다』고전제하고 이러한 저해요인들을 分析, 『人間化를 위한 教育의 방향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4시부터 시작된 討論은 裴鍾根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討論에 나선 金寬性(東大附高校長) 선생은 「학교는 敎職員의 결여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책임의 무거움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韓正敎(進明女高) 교사가 『학교는 있어도 敎員을 없다』고지적한 학교교육의 現實에 대해, 鄭信在(UNESCO韓國委員) 씨는 『그것은 교사와 學生간의 感情교류가 없기 때문이며 知·德·體育의 實現을 위해서, 합의된 人間化의 개념부터 정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朴來風(中央敎育硏究院) 氏는 敎科정선 문제에대해 金昌坤(새한신문) 氏는 人間的 교육의 밑바탕이되는 家庭방문의 필요성에 대해 각각 그 질문했다.

以上 제기된 문제들을주제발표를 한 演士들에 의해 답변이 있었는데 종합적 意見은, 『모든 교육제도 및 교육자체가 장기성을 내포한 만큼, 敎師의양심과 역량에 좌우된다』고 결론지워졌다.

토론이 끝난 뒤 6時부터 교양학관 3층 전시실에서 李총장을 심포지움참가자등 1백여명을 초청 소연을 베풀었다.

<관계기사 본면 4·5面>

◇人間化를 위한 教育問題심포지움이 綜合세미나室에서 열렸다.

檢閱 에 비교련 학년별 시범및 實技競進도

오는 11일(金) 실시하는 1학년 실기경진조는 교련시간에 개별훈련을 각각 받아왔다.

본 檢閱은 11일 오전10時부터 시작되는데, 2·3학년 전원의 열병및 분열 3학년의 시범훈련, 2학년의 實技競進훈련으로 되어있다.

오전 11일(金) 실시되는 1학년 전종목 검열및 實技競進에 대비한 전열(女學生포함·2·3학년 교련대상자제외)를 대상으로 大運動場에서 실시된다.

3학년 실기시범조는 지난 7일(月) 오후1시부터 시범훈련을 받았으며, 2학년 전원은 11일(金) 실기검열을 받았다.

自然環境 自律的 淨化作業

27日 本校 自然保護會 發足

汎國民的으로 실시하고 있는 自然保護運動에 호응하여 學內外 自然環境保護및 淨化作業과 계몽을위한 「東國大學校 自然保護會」가 지난 10월27일 발족되었다. 李瑄根總長을 會長으로 하고 金翰周總務處長을 副會長으로 하는 本會는 自然淨化, 自然保護, 環境보전을 목표로 교내 교직원, 학생이 자연보호사상을 생활화하고, 자연 훼손 방지를 위한 계몽과 敎育訓練을 실시함은 물론 매일 교내외 청소를 하는등 자율적인 淨化事業을 펴나가기로 했다.

本校 自然保護會 委員으로는 各 學·處·室長 및 부속기관장등 28명을비롯한 교직원과 재학생으로 구성되어있으며 本校자연보호담당 구역으로서는 제1차 책임구역과 제2차 책임구역으로 분리 설정했다.

1차 책임 구역은 본교 교내 캠퍼스주변, 2차 책임구역은 장충단公園과 南山 순환도로 주변으로 1차 책임 구역에 대해서는 매일 2회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2차 책임 구역은 매월 첫주 토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여에걸쳐 구역 청소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가두캠페인도 벌이기로했다.

◇「自然을 보호합시다」라는 플랭카드와 함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교직원들.

行試 1次 19名 合格

考試班指導등 지원 主効

지난 5일(土) 발표된 第21回 行政考試 1차試驗에 이들을 19명과 지난 第20回 行政考試 1차에 합격한 우승환(經濟·4)군등 9명, 總29명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되는 第21回 行政考試 2차시험 응시자격을 획득했다.

한편 考試指導敎員會(委員長=崔曉煥 法政大學長)의 발표에따르면 各種 國家考試 응시할 자격을 얻은 학생은 총52명으로 이를 세분해보면, 行政考試 29명(20回10명, 21回=19명), 司法試驗 17명(19回), 外務考試 6명(10回=3명, 11回=3명) 등이다.

이같은 국가고시 合格者의 여폭적인 증가에 대해 李淳容考試班指導敎授는 『考試班의 집중지원과 考試特講등 제도적 뒷받침에 힘입은바크다』고 밝히고 『고시반의 효율적 활용과 우수학생의 집중지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번 行政考試1차합격자 명단이다.

◇21回 合格者

▲이동근(行政·2) ▲한경석(〃·3) ▲손유동(〃) ▲남택범(〃·4) ▲조돈희(〃) ▲권지관(經行·3) ▲박병식(經濟·3) ▲유권종(〃) ▲이종원(77 行政卒) ▲최현지(77 法卒) ▲나경수(行政·4) ▲정유섭(行大院) ▲석석인(〃) ▲민병림(〃) ▲신창범(〃) ▲이동림(〃) ▲조영태(〃) ▲이승용(〃) ▲박익수(〃)

◇20회 合格者

▲우승환(經濟·4) ▲김형진(大學院) ▲허세봉(行大院) ▲최충대(〃) ▲지상봉(〃) ▲이진식(〃) ▲정태석(〃) ▲김준선(〃) ▲권혁기(〃)

同門會등도 登錄制

써클등 과외활동育成

학생지도과에서는 보다활발한 과외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학생의 써클과동문회 등에 대해 14일부터 19일까지(1주일간) 일제등록을 실시한다.

이번 써클·동문회등록은 써클자치비 지원문제, 내년도 신규등록을 해야 하는데, 써클등록에관한 사항은 학생지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각 써클장 및 同門會長은 오는7일부터 16일까지 신청서용지(단체등록신청서·단체등록카드·회원신상카드·지도교수취임승인서)를 학도호국단 본부 3층)에서 교부받아 학생지도과에 접수해야 하는데 써클등록에관한사항은 학생지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第15回 東大新聞社 學術賞 入賞者 發表

本社 第15回 學術賞 審査委員會에서는 11월3일 綜合審査委員會를 열고 人文社會科學分野의 應募論文이 현저하게 늘어남에 따라 今年부터 學術賞施賞種目을 改正 人文科學과 社會科學分野로 나누어 施行키로 決議했읍니다.

이에 따라 제15회 학술상은 다음과 같이 4個分野에서 9名의 入賞者가 最終的으로 確定되었읍니다.

◇人文科學分野

本 賞=崔 琮 錫(佛敎3)
<山神信仰의 기원과 新羅의 護國思想>

獎勵賞=鄭 信 在(國敎3)
<國語科 敎材論硏究>

◇社會科學分野

本 賞=禹 鍾 大(法學3)
<男女平等과 家族法上의 問題點>

獎勵賞=劉 榮 鍾(貿易3)
<對韓 先進國의 非關稅 장벽과 그對策에 관한 小考>

〃 =김 성 범(2部工經2)
<韓國 기계공업 育成案 考察>

◇自然科學分野

本 賞=해당자 없음

獎勵賞=金 世 溫·柳 榮 芽(科敎4) 共同硏究
<금붕어에 대한 가솔린개스와 Pb의 汚染에 관하여>

◇創作文學分野

本 賞=해당자 없음

獎勵賞=李 璧 敎(國敎2)
詩<쌀두개 奚>

〃 =李 喜 成(哲學2)
小說<房>

〃 =愼 重 喆(國文2)
小說<맹꽁이>

◇審査委員

人文科學: 김성배(도서관장) 金煐泰(불교과교수) 金昌熙(미술과교수)

社會科學: 錢昌源(經商大學長) 韓相範(法學科교수) 兪光震(政外科교수) 李震圭(공경과교수)

自然科學: 孔泰勳(농생과교수) 申鉉昭(化工科교수)

創作文學: 章湖(국교과교수) 洪起三(국문과교수)

1977년 11月

東大新聞社

社告

敎職科目 特講

師範大 4學年 대상

사범대(학장=南都祐박사) 敎職科目 特講이 사범대 4학년생전원을 대상으로 7日(月)부터 16日(水)까지 실시된다.

1977年度 中·高敎職員 任用順位考査에 대비한 이번 교직과목 특강은, 매일 교직(웅변이·메꾸기, 떼입히기, 나무심기等) ▲훼손된綠地, 土落地, 沸騰地손질 ▲전연기념물등 문화재의 보호관리 ▲자연자원 보존 ▲자연보호운동과 連繫된 도시새마을 운동등 추진 분야는 이번 교직과목 특강은 매일 교내외 청소를 하는등 자율적인 淨化事業을 펴나가기로 했다.

河德模館長 圖書 54권기증

本校 과학관장인 河德模박사(工大·食工科)가 「國會議錄」등 政治관계도서 54권을 지난4일(金) 도서관에 기증했다.

◇河德模館長.

이 圖書들은 河교수의 母校 제9대 국회의원이었던 親 허모인女史가 別世하기전에 수장한 것으로 河교수는 『개인적으로 所藏하는것보다 많은 학생의 연구에 활용할수 있도록 기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성배도서관장은 이에대해 감사장을 전달했다.

敎授動靜

▲安恩明(電子計算所長·經商大·電算科) 교수=지난 11월5일 韓國情報科學會로부터 지난달8일1일부터 8일까지 열린 IFIP(國際情報處理學會) 총회에참석, 韓國 가입에 많은 노력을한 공로와 그동안의 활발한 학술활동으로 감사패를 받았다.

▲金雲學(佛大교수) 박사=문공부에서 발족한 「無形民俗자료 조사위원회」韓國재래茶부문 조사위원으로 위촉, 지난10월30일 泗川 多宰寺, 海南 大興寺등지에서 자료조사를 마친후 귀교.

▲朴瑄浩(法政大·行政科) 교수=지난6일 경기대학에서 개최된 韓國觀光學會주최 정기총회에서 「觀光資源의 特性과 社會心理學的要因」이란 연제로 主題발표.

東國農林 10輯發刊

9日, 各科別로 配付

農林大學大隊(대대장=李榮根·林學3)에서는 「東國農林」제10집을 발간했다.

農林대학생들의 연구·논문으로만 편집된 이論文集은 제14회 本社 학술상 自然科學分野 本賞수상자인 朴光鎬(農生·4)군의 「쥐꼬리 풀의 靜命연장에 관한 硏究」등 13편의논문이 農業生物·育種·營農·農藥經濟·遺傳등 5개분야로 나뉘어 실려있다.

「東國農林」제10집은 9일부터 農林大 각과별로 배부한다.

兵營集體訓練마쳐

防衛誠金도 전달

지난달 29일부터 병영집체훈련에 들어갔던 교양학부생 1천10백16명은 文武육및 훈련을 마치고 7일 4시 귀교, 전원 건강한 모습으로 歸校했다.

敎養學部生 일반군사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된 이번 兵營훈련에서 학생들의 술훈련, 사격술, 각개전투, 화생방, 유격훈련, 전투대형 제식훈련등 일반군사교육전반에 걸쳐 지난 7일(月) 귀교에 앞서 오후 2시부터 문무대 연병장에서 거행된 退所 申告式에는 본교 金仁鴻교무처장을 비롯한 학처장과 1학년 지도교수, 최일영 육군종합행정학교장등이 참석했는데, 이자리에서 이원영(연대장·農生), 황윤성(印哲), 김태재(法), 이두현(經濟), 임의선(建築), 윤용범군등 6명에게 영정학교장상이수여되었고, 훈련소장상에는최상진(農經), 정윤범(哲生), 임영기(物理), 최창호(電算), 박해정(食工), 정진석(體敎), 임현철군등 7명이 각각 수상했다.

이어 진행된 최일영교장은 식사를 통해 『평소 기초체력이 부족한 대학생으로는 힘겨운 훈련이었다』고 前提하고 『부족한 정신력으로 훌륭한 成果를 거두었다』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이날·퇴소식에 이어 본교교양학부학생들은 훈련중에 募金한 방위성금 6만5천2백원을 전달, 본교 졸업생들의 愛國心을발휘했다.

한편 지난 2일 병영집체훈련을 받고있는 교양학부장과 교수, 직원, 교양학부 여학생2백여명은문무대를 방문, 위문한바있다.

電算院 中間考査

14日부터 18日 사이에

電子計算院(院長=錢昌源博士)의 2學期 중간고사가 학년별로 오는 14日부터 始作, 18日까지 실시된다.

시험시간은 B·C班은 수업시간과 동일하며 A班은 오전 10時부터 시작된다.

킨데만敎授來校 李總長과 환담

西獨 뮌헨대학 교수이며 國際政治學硏究所長인 G·K·킨데만博士가 지난 10月31日 本校를 訪問, 李瑄根總長과 환담했다.

킨데만博士는 李總長과는 오래전부터 國際政治問題로 交分이두터운사이며 이날 환담에서는 國際政治와 韓國佛敎및 문교정책 문제등에 관한 相互 관심사를 討議했다.

行政大學院(夜間)(男女)學生募集

一、募集課程 및 學科…碩士課程 및 硏究課程
①行政學科…人事行政 組織管理 財務行政 計劃行政 都市行政 開發行政專攻(觀光行政專攻은 申請中)
②安保行政學科…公安行政 國防行政 防衛産業 安全管理專攻
③敎育行政學科…敎育行政專攻
二、願書交付및接受…一九七七年十一月七日(月)부터 十二月二日(金)까지
三、銓衡日時및場所…一九七七年十二月三日(土)午後二時 本大學院
四、銓衡方法…書類銓衡및 面接
五、特典…①公務員全員(敎員、軍警포함)에 奬學金支給함
②其他 考試奬學金、優等奬學金、總長奬學金、女學生奬學金등 特典있음

電話(直)㉗8574 (交換)㉗8131~9㉗8141~5(272)

經營大學院生(夜間)(男女)募集

一、募集專攻

人事勞使管理專攻	貿易學專攻
生産管理專攻	經營法律專攻
財務·稅務·會計專攻	保險管理專攻
市場管理專攻	電子情報處理專攻

二、募集人員=碩士課程 硏究課程 各專攻 若干名
三、銓衡方法=碩士課程=銓衡및面接 硏究課程=書類銓衡 및 面接
四、願書交付및接受期間=一九七七年十一月十四日(月)부터 一九七七年十二月九日(金)까지
五、銓衡日字=一九七七年十二月十日(土)午後二時
六、銓衡場所=本經營大學院
七、特典=①貿易專攻者는 一年 修了後 貿易士 필기시험 科目上의 免除혜택이 있음
②電子情報處理(EDPS)및 生産管理 專攻은 本校의 컴퓨터 센터를 利用할 수 있음
③本 大學院 在學生의 在職企業으로부터 硏究生의 委託經營相談 委託硏究 및 共同硏究등의 依賴에 대하여는 特別히 優待함
④軍·警 敎育公務員 一般公務員및 女學生의 全員에 대하여 授業料의 半額을 免除함
⑤夫婦學生의 경우 婦人에 대하여는 授業料의 特別 免除 惠澤이 있음

電話(直)㉗8140 (交)㉗8131~9(274)㉗8141~5(274)

東國大學校

大學院(男女) 學生募集

一、募集學科 및 課程(博士및碩士課程)
㉮碩士課程=佛敎學科 哲學科 印度哲學科 國語國文學科 英語英文學科 史學科 演劇映畵學科 數學科 物理學科 化學科 統計學科 法學科 政治學科 行政學科 警察行政學科 經濟學科 商學科 經營學科 農學科 林學科 農業經濟學科 應用生物學科 電子工學科 電氣工學科 土木工學科 建築工學科 高分子工學科 化學工學科 食品工學科 工業經營學科 體育學科
㉯博士課程=佛敎學科 哲學科 國語國文學科 英語英文學科 史學科 數學科 物理學科 化學科 應用生物學科 法學科 政治學科 經濟學科 農學科 林學科 農業經濟學科 農學科 林學科 農業經濟學科 食品工學科
二、願書交付및接受…一九七七年十一月十五日부터 十一月三〇日까지
三、銓衡日字및場所…一九七七年十二月三日(土)午後二時 本大學院
四、銓衡方法…筆答試驗및 面接
※其他詳細한 것은 本大學院 敎務課에 問議할것

電話 交㉗8131~9(구내237) 直㉗3256

玉耶教育의 實現

<社說>

史上 類例드문 豊饒의 가을을 맞이하여 本大學學生들의 自信活動은 또 그 어느 해보다 눈부신 成果를 거두고 있다.

옛부터 「상달」이라고 우리 民族이 神聖視하는 10月에 있던 學徒護國團主催의 全校體育大會는 儉素하면서도 前進하는 大學으로서의 躍氣와 生産的인 意慾이 넘쳐 있었을 뿐 아니라 江華島에서 가진 學徒護國團幹部의 野營訓練에서 고된 訓練에 欣然히 參加하는 幹部學生들을 通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護國團의 土着化에 成功하였다는 自信感을 가지게 되었다.

學徒護國團을 中心으로한 이와같은 行事가 모두 大學生들의 自律的인 活動이었으며 非生産的인 浪費의 除去와 人和團結을 위한 노력의 자취가 두렷이 나타나 있으며 그 行事의 細部 企劃에 이르기까지 모두 創意力에 넘치는 것이었다는 點에서 全家國人이 모두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데 吝嗇해서는 안될 것으로 確信하는바이다.

以上과 같이 최근에있어서의 本大學生의 自治活動은 그것이 비록 成人層같은 圓熟味는 없다할지라도 學生다운 素朴과 情熱에 넘치는것이었으나 特히 注目할만한것은 本大學의 女學生活動을 들수있다.

其間 本大學女學生은 女學生監의 指導下에 敎養講座와 女性必須의 高尚하고 健全한 각종의 趣味敎育을 自發的으로 開催하여 왔던 것이나 特히 昨年에 적지않은 校費가 所要되었던 蓮花苑의 開設 以後 그 活動이 더 組織化되고 計劃性을가지게 되었던 것은 무엇보다 반가운 일이었다.

女學生만의 課外活動인 꽃꽂이講習會, 봉들씨강습회를 비롯한 各種의 趣味및 敎養講座는 그것이 敎養女性으로 또는 女性指導者養成에 있어서 어느 定規科目에 못지않는 營養素가 되는 것으로 믿어 疑心할바가 없는 까닭이다.

本大學女學生들이 가진 이와같은 意慾의이고 健全한 學生活動에서 특히 感銘깊었던 것은 10月27日부터 29日까지 3日間에 걸쳐가졌던 第大學 家政敎育科主催의 「衣裳및 作品發表會」를 들수 있을 것이다.

學生들의 共同硏究로 발표된 女學生校服에 관한 調査와 僧服의構成에 관한 硏究는 그 硏究課題가 現下 우리나라의 女性敎育및 僧團에서 緊急한 문제로 되어 있는만치 問題意識부터가 매우 참신하였을뿐 아니라 여학생복·僧服에서韓服을 그 硏究課題로 채택하여 이루기까지 本大學 知性들이 精誠들여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을만하다.

둘째, 그 방면의 專門書를 涉獵하여 學生으로서는 보기 드문 該博한 識見을 갖고있음을 인정할 수가 있으며, 자신의 主見과 論旨를 견지하여 학구적 의욕을 보이고 있는 점이 칭찬할만하다.

지적할 점으로 첫째, 護國山神으로 첫째 變容되는 過程과그 說明및 考證이 不充分하며 둘째, 護國山神의 展開와 佛敎思想과의 관련및 융合關係의 問題解明不足과 그 論證이 약한 점을 지적할수 있다.

<佛敎大助敎授> 金煐泰

■…「韓國土着山神의 起源과 性格」(최종석·佛敎科)라는 論題로 우리의 古代土着文化 중에서 특히 山神信仰에 관하여 考察하고있는 本 論文은, 全體를 「山神의 起源과 性格」 「新羅의 護國思想과 山神信仰」의 두 章으로 나누어서 論述하고 있다. 前章에서는 ①Totemism과 山神, ②天神降臨의 檀君神話와 山神, ③思想과 山神의 性格으로 항목을 나누어 古代 土着山神의 起源과 그 性格을 究明하였으며, 後章에서는 ①新羅始祖神話의 構造와 新羅建國, ②新羅護國山神의 由來, ③護國山神의 歷史的展開와 新羅佛敎思想의 3項으로 나누어 山神信仰의 護國的展開와 佛敎思想과의 關聯性및 그 習合相을 槪括的으로 다루고 있다.

이 論考는 全般的으로 學究的努力의 흔적이 보이는 연구논문이라고 할 수가있다. 그 長短點을 대략 다음에 들기와 필요성, 독적, 방향을 명시한 점이 좋았다.

본론에서도 국어과 교재와 현실과를 결부시키고 모든실정면을 명철히 관찰 평가하여 앞으로의 교재편찬의 정책과 방향을 모색한 점, 일선에서의 유의점을 첨증을 열거한 것은 이론과 실제를결합시킨 것으로 좋게 본다.

다시 말해서 주제관철의 정신자세가 두렷이 엿보인다.

결론에서는 주제전개를 재강조하고 앞으로의 문제점과 제를 제시한것이매우좋았다.

다만 전체의 서술에 있어서 일선교사들의 참고 의견같은 것을 청취, 조사, 삽입하였으면 금상첨화라고본다. 또, 국어교육 관계의 학술문헌을 더 많이 읽었으면 하고, 문교당국의 의견도 첨부했으면 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논문의구성, 전개가 좋았고 그 의도와 작성 자세및 앞으로의문제 제시가 특히 좋았다. 흠이 있다면 언어구사(논문전개)에 있어서 좀덜된 곳이 다소 있을이 엄이다.

<文博·師大敎授> 김성배

人文科學分野

<藝術科尊講>

◇金聖培 ◇金煐泰 ◇金昌熙

學究的 態度 깊이 있어

歷史의 설명및 考證 불충분

主題 貫徹의 정신자세 엿보여

第15回 東大新聞社 學術賞 綜合硏究 審査評

■…「現代美術의 再考」(玉仙姬·佛敎大美術科)는 美術學科 1學年 學生으로서 多敢의 美術 專門誌를 耽讀하여 자기것으로 理解하려고노력했었다는 點을 우선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아직 論文作成의體系와 理論에대해서 미숙하여 論題에따른 結論 本論및 本論文을 展開하게된 動機誘發等이 되어 있지 않고 아울러 調査方法도 明示되어 있지 않았다.

內容에 있어서도 前後의연결이 不合理하며 「한」가 明白하지 못하고 結論도 보다 더 自己의 主張과 앞으로의 問題點等이 제시 되었어야한다.

그러나 美術科 1學年 學生으로 연구를 계율리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격려를 보내고싶다.

<文博·師大敎授> 김창배

■…「韓國의 巫俗과 佛敎」(김경년·工經科)는 本硏究의 目的을 「巫俗과 佛敎의 關聯性및 그 習合相을 槪括的으로 다루고 있다.

이 論考는 全般的으로 學究的努力의 흔적이 보이는 연구논문이라고 할 수가있다. 그 長短點을 대략 다음에 들기와 같이 지적할 수가 있다.

좋은 점으로 첫째, 우리民族文化의 源泉과 그 展開相을 깊이있게 다루고자한 학구적태도는 높이 평가받을만하다.

둘째, 그 방면의 專門書를 涉獵하여 學生으로서는 보기 드문 該博한 識見을 갖고있음을 인정할 수가 있으며, 자신의 主見과 論旨를 견지하여 학구적 의욕을 보이고 있는 점이 칭찬할만하다.

지적할 점으로 첫째, 護國山神으로 첫째 變容되는 過程과그 說明및 考證이 不充分하며 둘째, 護國山神의 展開와 佛敎思想과의 관련및 융合關係의 問題解明不足과 그 論證이 약한 점을 지적할수 있다.

<佛敎大助敎授> 金煐泰

■…「정신재균음」(「국어과교재 론연구」) 3학년 학생으로서 발대한 문헌 자료를 수집, 독파하여 이를 분석, 종합, 통계화한 점과 그통계를 중심으로 논문을 전개한 것이 훌륭하다.

서론에서 이 논문 작성의 동기와 필요성, 목적, 방향을 명시한 점이 좋았다.

본론에서도 국어과 교재와 현실과를 결부시키고 모든실정면을 명철히 관찰 평가하여 앞으로의 교재편찬의 정책과 방향을 모색한 점, 일선에서의 유의점을 첨증을 열거한 것은 이론과 실제를결합시킨 것으로 좋게 본다.

다시 말해서 주제관철의 정신자세가 두렷이 엿보인다.

결론에서는 주제전개를 재강조하고 앞으로의 문제점과 제를 제시한것이매우좋았다.

다만 전체의 서술에 있어서 일선교사들의 참고 의견같은 것을 청취, 조사, 삽입하였으면 금상첨화라고본다. 또, 국어교육 관계의 학술문헌을 더 많이 읽었으면 하고, 문교당국의 의견도 첨부했으면 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논문의구성, 전개가 좋았고 그 의도와 작성 자세및 앞으로의문제 제시가 특히 좋았다. 흠이 있다면 언어구사(논문전개)에 있어서 좀덜된 곳이 다소 있을이 엄이다.

<文博·師大敎授> 김성배

社會科學分野

論文體系, 立論들 좋아

資料의 성실한 調査, 分析태도 보여

■…男女平等의 문제는 흔히 女權運動者의 과열된 주장과 같은 인상을 주기도한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의 숙제로 되어오고있는 사회적, 정치적 爭點인데 「世界女性의 해」를 契機로 家族法改正의 문제도 일어 國會에 집약되어 내용으로 들어져서등 과열수있는 지는 아직도 남겨진 문제가 많다. 이러한 時代性의농도가 짙고 賣反이 엇갈리는 문제를 本質 大君이 「남녀평등과 가족법상의 문제점」에서 다룬 점중 두가지 注目되는 면을 지적할수 있다. 하나는 男女平等의 문제가 人間尊嚴의 존중이란 관점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접근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 상속 馬鍾鐘 法案이 어떤 점에서 이르기나 그 法案이 이미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法案이 지적한 점과 같은 인상을 주기도한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의 숙제로 되어오고있는 사회적, 정치적 爭點인데 「世界女性의 해」를 契機로 家族法改正의 문제도 일어 國會에 집약되어 내용으로 들어져서등 과열수있는 지는 아직도 남겨진 문제가 많다. 이러한 時代性의농도가 짙고 賣反이 엇갈리는 문제를 本質 大君이 「남녀평등과 가족법상의 문제점」에서 다룬 점중 두가지 注目되는 면을 지적할수 있다. 하나는 男女平等의 문제가 人間尊嚴의 존중이란 관점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접근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 상속 馬鍾鐘 法案이 지적한 점과 같은 인상을 주기도한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의 숙제로 되어오고있는 사회적, 정치적 爭點인데 「世界女性의 해」를 契機로 家族法改正의 문제도 일어 國會에 집약되어 내용으로 들어져서등 과열수있는 지는 아직도 남겨진 문제가 많다. 이러한 時代性의농도가 짙고 賣反이 엇갈리는 문제를 本質 大君이 「남녀평등과 가족법상의 문제점」에서 다룬 점중 두가지 注目되는 면을 지적할수 있다. 하나는 男女平等의 문제가 人間尊嚴의 존중이란 관점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접근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 상속 馬鍾鐘 法案이 지적한 점과 같은 인상을 주기도한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의 숙제로 되어오고있는 사회적, 정치적 爭點인데 「世界女性의 해」를 契機로 家族法改正의 문제도 일어 國會에 집약되어 내용으로 들어져서등 과열수있는 지는 아직도 남겨진 문제가 많다. 이러한 時代性의농도가 짙고 賣反이 엇갈리는 문제를 本質 大君이 「남녀평등과 가족법상의 문제점」에서 다룬 점중 두가지 注目되는 면을 지적할수 있다. 하나는 男女平等의 문제가 人間尊嚴의 존중이란 관점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접근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

<經博·經商大學長> 錢昌源

◇錢昌源

◇韓相範

◇李震圭

■…오늘날 우리 政府가 指向하고 있는 高度經濟成長率의 持續과 사회개발및 기술의 高度化를 통한 重化學工業의 育成등은 4次計劃의 基本目標로 되고있다. 특히 이 가운데에도 機械工業의 育成課題는 防産開發과 연결어 온 國民의關心事로더두되고있다. 이러한 때에 「韓國機械工業育成方案」(김성년·工經科)이란 論題를 택한 것은 극히 時宜에적합한 論題라는 점에서 먼저 同感이 간다. 특히 書耕 夜讀을하는 학생으로서 그것도 2學年이라 당연하고 現實的인 問題提起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만하다.

둘째, 그 방면의 專門書를 涉獵하여 學生으로서는 보기 드문 該博한 識見을 갖고있음을 인정할 수가 있으며, 자신의 主見과 論旨를 견지하여 학구적 의욕을 보이고 있는 점이 칭찬할만하다.

지적할 점으로 첫째, 護國山神으로 첫째 變容되는 過程과그 說明및 考證이 不充分하며 둘째, 護國山神의 展開와 佛敎思想과의 관련및 융合關係의 問題解明不足과 그 論證이 약한 점을 지적할수 있다.

<佛敎大助敎授> 金煐泰

■…「韓國巫俗과 佛敎」(김경년·工經科)는 本硏究의 目的을 「巫俗과 佛敎의 關聯性및 그 習合相을 槪括的으로 다루고 있다.

이 論考는 全般的으로 學究的努力의 흔적이 보이는 연구논문이라고 할 수가있다. 그 長短點을 대략 다음에 들기와 같이 지적할 수가 있다.

좋은 점으로 첫째, 우리民族文化의 源泉과 그 展開相을 깊이있게 다루고자한 학구적태도는 높이 평가받을만하다.

둘째, 그 방면의 專門書를 涉獵하여 學生으로서는 보기 드문 該博한 識見을 갖고있음을 인정할 수가 있으며, 자신의 主見과 論旨를 견지하여 학구적 의욕을 보이고 있는 점이 칭찬할만하다.

지적할 점으로 첫째, 護國山神으로 첫째 變容되는 過程과그 說明및 考證이 不充分하며 둘째, 護國山神의 展開와 佛敎思想과의 관련및 융合關係의 問題解明不足과 그 論證이 약한 점을 지적할수 있다.

<佛敎大助敎授> 金煐泰

■…모두 10명의 응모작품을 읽고 처음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학생들의 시를 대하는 태도의 뜨뜻미지근한 느낌이다. 그것은 대체로 두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첫째는 언어조직의 안일성이고, 둘째는 주제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이다. 첫째는 저학년에 그런 경향이 짙은 느낌인데, 선택해오는 언어에 생명감이 없고, 따라서 그 詩語에 자신의 목소리가 우러나지 않고 있는 점이다. 넓은 뜻의 문학이 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특히 「자기 발견」이라는 대전제가 시행위의 앞에 놓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따라서 또 그것은 둘째번 결함에도 그대로 반영되고있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대한 치열한 사색, 추구가 없으니, 따라서 거기 시인과대상 사이에 쟁투가 없고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픈 마음을 억누르고 올해 본 상을 내지 않기로 작정한것을 이해할 줄 믿는다.

<師範大敎授> 章湖

◇章湖

■…「거대한 솔가락」을 탁월한 문장력을 보여주고있으나 事件의 構成力이 매우 빈약하였고 「세월이 부서지는 계곡」 역시 사건의 연결방법에있어 군더더기와 飛躍이 잔파될수 없었던 점들이다.

「雜破船」의 경우는 골처리만 제대로 되었다면 當選作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재판장면 (판넬적인것이지만)과 편지로 맺어지는 골부분은 이 작품을 결정적으로 弱化시킨 대목이다.

장려상으로 뽑은 愼重語의 「맹꽁이」(국문·2)와 李東成의 「房」(철학·2)은 소설적 기질이 相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두 작품의 基本技를 인정하면서도 장려상에 둔 이유는 「맹꽁이」가 寫實的인 분위기로 시종일관하면서도 큰 감동을 주지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고 「房」의 경우, 주인공의 觀念과 행동이 일치되지 못하는 점과 필연성이 보이지 않는 病的 분위기가 결점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文理大·專講> 章湖

◇洪起三

■…부고된 작품이 모두 11편이었고 이중에서 다섯편이 본선에 올랐다. 본선에 오른 작품들을 보면서 選者는 東國文學의 새로운 가능성이보이고 있다는 기쁨을 맛보았다. 지금까지 東國文學의 주류는 散文이아니라 詩였고, 詩中에서도 東洋的 土着的정서를 중심으로하는 萬海, 未堂, 芝薰의 詩風이중심을 이루어왔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근자에 이르러 동국문학의 심진지망자들은 우선 그 수에 있어서 상문적이 우세를 나타내고 있고, 力量이나 열의에 있어서도 詩쪽에 더해서 소설이 있는 것이다.

둘째는 公靈室질에 대한 붕어의 生理的반응을 관찰함에 있어서 6종의 白血球의 種別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은 일반의 病院生理검사실에서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써 타당한 방법이지만, 단지 個體數를 좀더 많이 검사하였으면 좋았다고 본다.

세째로 이번 실험에서 납(鉛)의 입자가 뇌에까지 침범한 상태를 組織化學的으로 현미경관찰한 것은 적절한 과학적태도였다고 본다. 물론 납과 붕어에 대한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은것 같다.

<高工科·助敎授> 申鉉昭

◇申鉉昭

■…우리 심사위원들은 몇편의 論文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기 앞서, 몇가지 규정을 세웠다. 첫째는 논문으로서의 形式을 갖추었는지를 보고, 둘째는 內容의 科學性과 處理方法, 세째는 필자의 연구태도와 結論우도의 타당성등에 관심을 두었다.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燃料油의 脫黃에 의한 大氣汚染防止對策(化工 3년·이서용)은 특히 公害문제가 요사이 주목을 끌고 있는 이때에 수많은 문헌을 조사하여 체계화하고 脫黃의 방지책을 제시한 것은 훌륭했으나 실지 실험이 결여되어 아쉬운 감이 있었다.

2) 花環과 꺾꽂이 꽃의 壽命연장에 관하여(農生 4年·朴光鎬)는 2年間의 실험결과의 力作으로서 새로이 발견된 부분도 있어서 높이평가 되었지만, 花環에 관한연구는 今年度 새로운 연구라고 하더라도 꺾꽂이 꽃에관한 연구는 76年度 本賞을수상한 작품이어서, 아깝지만 보류하기로 하였다.

3) 금붕어에 대한 Gasoline gas와 Pb의 오염에 관하여(科敎科 4年·김세은, 류형아)는 그것의 着眼도 좋았지만 公害物質인 Gasoline gas나 Pb(납)가 붕어에 대한 生理的 영향상태를 분석하고 조직관찰한 논문이다.

이러한 실험을 진행시킬때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Gasoline gas와 납(鉛)물질이 뇌에까지 침투된 것을 그들의 勞苦의 結果라고 보겠다. 단지 실험반복이 3회밖에 안된것을 분석하고 조직관찰한 논문이다.

이러한 실험을 진행시킬때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Gasoline gas와 납(鉛)물질을 금붕어의 飼育水로써 사용할때의 농도의 조절문제이다. 그 농도가 짙으면 붕어가 빨리 죽고, 옅으면 오랜 시간을경과한 뒤에야 실험관찰되기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용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그 농도조절에 성공한 것은 가상한일이다.

둘째는 公害室질에 대한 붕어의 生理的반응을 관찰함에 있어서 6종의 白血球의 種別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은 일반의 病院生理검사실에서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써 타당한 방법이지만, 단지 個體數를 좀더 많이 검사하였으면 좋았다고 본다.

세째로 이번 실험에서 납(鉛)의 입자가 뇌에까지 침범한 상태를 組織化學的으로 현미경관찰한 것은 적절한 과학적태도였다고 본다. 물론 납과 붕어에 대한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은것 같다.

<高工科·助敎授> 申鉉昭

自然科學分野

內容의 科學性과 처리방법 重視

實驗 反復횟수 적어 유감

主觀없는 피상적인 說明에그쳐

■…모두 11편의 응모작품을 읽고 처음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학생들의 시를 대하는 태도의 뜨뜻미지근한 느낌이다. 그것은 대체로 두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첫째는 언어조직의 안일성이고, 둘째는 주제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이다. 첫째는 저학년에 그런 경향이 짙은 느낌인데, 선택해오는 언어에 생명감이 없고, 따라서 그 詩語에 자신의 목소리가 우러나지 않고 있는 점이다. 넓은 뜻의 문학이 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특히 「자기 발견」이라는 대전제가 시행위의 앞에 놓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따라서 또 그것은 둘째번 결함에도 그대로 반영되고있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대한 치열한 사색, 추구가 없으니, 따라서 거기 시인과대상 사이에 쟁투가 없고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픈 마음을 억누르고 올해 본 상을 내지 않기로 작정한것을 이해할 줄 믿는다.

<師範大敎授> 章湖

◇孔泰勳

■…自然科學에서는 實驗을 토대로한 硏究가 대부분이나 일부에서는 실험을 토대로한 사실을 체계화하거나 또는 문제점등을 제시해주는 Paper Working이 있는데 「燃料油의 脫黃에의한 대기오염 방지대책」이란 논문은 후자에 속하는 연구이다.

오늘날 自然保護가 重大한 問題로 등장하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硏究를 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여러사람들이 발표한 것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높이 평가되나 자연보호나 환경오염에 대하여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주제인 탈황에 의한 아황산가스로부터의 대기오염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한 감이 있으며, 더우기 자기의 주관을 加味시키지 않은 피상적인 설명이나 나열에 그쳐있어 서운한 감이있다.

대학생으로서는 너무나 힘든 논제를 택한것 같으나 그에 비해서는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은것 같다.

<敎工科·敎授> 孔泰勳

■…우리는 무수한 法律知識을 떠나서는 생활할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다시 말하면 公生活에 있어서나, 우리의 활동영역에서 떠날수 없는 것이 법률지식이며, 이것은 우리생활을 행복하고도 시급히 이해하고 있어야할 문제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지식이 단지 특정인의 독점적 지식만으로 인식되고 있고 거개가 관심조차 가지고있지 않음을 아는 일들의 산업사회를 살아 가는 민주시민으로서 매우 불안할 뿐만아니라 신기한 느낌마저 들게도 한다.

우선 간단한 예로 우리 대학의 경우를 보자.

대학후문에서 학생회관에 이르는 작도에는 언제부터인가 「일방통행」이라는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있는 것을 볼 수있다. 그 표지판은 아마도 위험을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한 신호임에 틀림없다.

원래 안전표지는 교통안전에 필요한 警戒, 禁止, 制限, 指示 등을 표시하는것임으로 운전자는 물론 모든 國民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부하된다.

하지만 우리 대학에 설치된 이 안전표지판은 불행하게도 가끔 무시당하는 입장에 서있다. 하필이면 그곳에 그 표지판이 설치되도록 指揮의 전을 이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뭉게뭉게 둘리기엔 너무도 시간이 흘러버린것같다.

그런데 이 표지판과 운명을 같이하는것이 또하나 있다. 대학인이면 누구라도 지켜야할 「語規程集」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대학의 설립근거에서 각종內規에 이르기까지 어느정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수록되어있는 것같다. 유감스럽게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간에 法網을 빠져나간다거나 條文의 해석을 악이용 한다거나 아예 관심조차 없다는 태도는 대학구성원으로서는 생각해볼 일이다. 물론 현재까지로는 이에대한 적절한 통제나 억제기능이 약화된데 그하나의 원인이 있다고도 본다. 그러나 과거의 위반행위들은 언젠가는 모두 드러나게 된다. 아무리 자신이 저지른 행위로부터 도망하려 하더라도 그것들은 그를 놓아주지 않을뿐만 아니라 항상 방해하고 있다. 이와같은 행위들을 떼어버리기란 불가능한 것이어서 빚에 눌린 반드시그 이그 행위는 평생동안 사람을 쫓아다니게 마련이다.

評家園區에 「죄가 있거든 곧 참회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 할줄아는데에 대장부의 氣像이 있다. 그리고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롭게 되면 그罪業도 마음을 따라 없어질 것이다.」라고 한말은 우리가 깊이 새겨둬야 할 것이다.

<大學閑話>

安全標識板

<法政大講講> 李璜雨

■…우리나라 衣裳界에 新風을 불어넣는 값어치 있는것으로 發展하기를 期待하여 마지 않으며 또 그렇게 될것을 疑心하지 않으나 우리는 이미 우리가 거두었던 이번 성과만 가지고 滿足하여서는 않될 것이다.

「消費가 美德」이라는 이른바 先進社會의 經濟哲學이 유행해서는 안되는 刻薄한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새로운 衣裳보급도 이미 流行이 지났거나 또는 몸에 맞지않게된 헌衣裳을 活用하여 다시 再生시켜 生活費의 節減과 家計簿의 忠實을 노렸하는 것도 이와같은 大學의 衣裳發表會에서는 着眼할만 한것으로 믿어진다.

濁하고 더럼운 俗世界에서 벗어나 眞·善·美의 追究에 그 高貴한 生涯를 바치는 玉耶夫人같은 女人像이 우리大學의 女學生이 지닐 女性像의 모델인 까닭에 우리 女學生의 眞理는 그 目標를 먼곳에만 둘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의 日常生活의 淨化를기져 昇化시켜 가는 곳에 있다고 믿어서이다.

<敎育科學生이 이번에 우리大學 敎育科學生이 거두었던 이와같은 성과는 그것이 결코 學生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指導敎授들의 꾀나는 努力도 또 스며있다는 점을 되새겨 보면 그것이 비록 完全한 境地에는 아직 未洽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敎育本能의 發露인 「啐啄同時」라는 師弟間의 오가는 막힘없는 情이 느껴져 어떤 성과보다도 더 高貴한 것으로 評價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계란에서 한마리의 병아리가 이 世上에 나오게 되려면 날갈한에서 입으로 그 껍질을 두드리는 병아리와 밖에서 이에 맞추어 껍질을 깨는 어미닭의 노력이 있어야 비로소 이루어 진다는 이 「啐啄同時」라는 佛敎에서의 옛敎育理想은 그것이 어떤 社會에 있어서도 가장 上의 眞理로 變함이 없는 것으로 믿어서이다.

燦然한 色彩와 流行의 尖端을 달리는 新型의 衣裳構成을 한번 발표회에서의 이른바 「패션·쇼」의 商業性展示에서 脫皮하여 低廉한 價格으로 活動의이며 品格 높은 實用服을 考案하려는 노력의 자취가 두렷이 나타난 이번의 이 衣裳發表會는 우리나라 衣裳界에 新風을 불어넣는 값어치 있는것으로 發展하기를 期待하여 마지 않으며 또 그렇게 될것을 疑心하지 않으나 우리는 이미 우리가 거두었던 이번 성과만 가지고 滿足하여서는 않될 것이다.

「消費가 美德」이라는 이른바 先進社會의 經濟哲學이 유행해서는 안되는 刻薄한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새로운 衣裳보급도 이미 流行이 지났거나 또는 몸에 맞지않게된 헌衣裳을 活用하여 다시 再生시켜 生活費의 節減과 家計簿의 忠實을 노렸하는 것도 期待하도록 大學의 衣裳發表會에서는 이와같은 着眼할만 한것으로 믿어진다.

濁하고 더럼운 俗世界에서 벗어나 眞·善·美의 追究에 그 高貴한 生涯를 바치는 玉耶夫人같은 女人像이 우리大學의 女學生이 지닐 女性像의 모델인 까닭에 우리 女學生의 眞理는 그 目標를 먼곳에만 둘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의 日常生活의 淨化를기져 昇化시켜 가는 곳에 있다고 믿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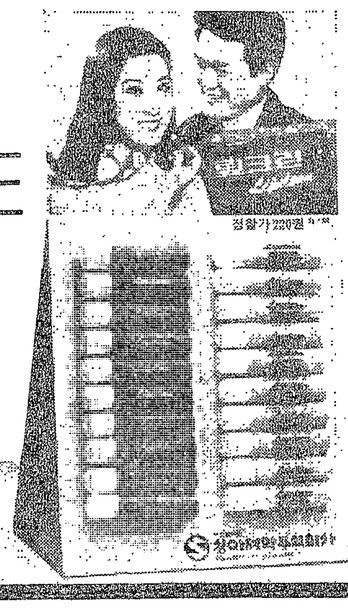
<敎育科學生이 이번에 우리大學 敎育科學生이 거두었던 이와같은 성과는 그것이 결코 學生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指導敎授들의 꾀나는 努力도 또 스며있다는 점을 되새겨 보면 그것이 비록 完全한 境地에는 아직 未洽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敎育本能의 發露인 「啐啄同時」라는 師弟間의 오가는 막힘없는 情이 느껴져 어떤 성과보다도 더 高貴한 것으로 評價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消費가 美德」이라는 이른바 先進社會의 經濟哲學이 유행해서는 안되는 刻薄한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새로운 衣裳보급도 이미 流行이 지났거나 또는 몸에 맞지않게된 헌衣裳을 活用하여 다시 再生시켜 生活費의 節減과 家計簿의 忠實을 노렸하는 것도 期待하도록 大學의 衣裳發表會에서는 이와같은 着眼할만 한것으로 믿어진다.

濁하고 더럼운 俗世界에서 벗어나 眞·善·美의 追究에 그 高貴한 生涯를 바치는 玉耶夫人같은 女人像이 우리大學의 女學生이 지닐 女性像의 모델인 까닭에 우리 女學生의 眞理는 그 目標를 먼곳에만 둘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의 日常生活의 淨化를기져 昇化시켜 가는 곳에 있다고 믿어서이다.

상아제약

더욱 더 좋아진
입술에 바르는약
립크린은
상아제약만의
BRAND NAME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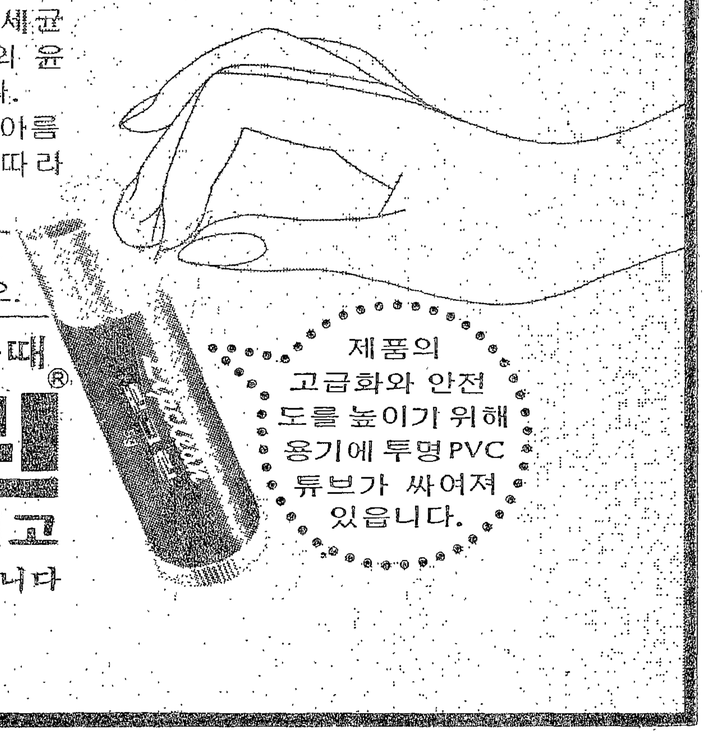


립크린은 프랑스 V.M.F社의 「튜티프류티」향이 배합되어 우아한 향기를 나타냅니다.
립크린은 엄선된 기제가 미세균등하여 침투가 빠르고 입술의 윤기를 지속적으로 나타냅니다.
립크린은 적색, 황색, 녹색의 아름다운 색상의 용기로 취향에 따라 선택하실수 있읍니다.

表示価220원

사실땐 꼭
→ 립크린을 확인하십시오.

♣입술이 트고 마를때®
립크린
5g 미니용기 입술연고
립크린은 가까운 약국에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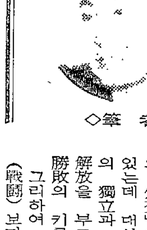


제품의
고급화와 안전
도를 높이기 위해
용기에 투명PVC
튜브가 싸여져
있읍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 아빠는 안보역군 엄마는 방접주부

護國團 野營大會 特講要旨

○…第3회 學徒護國團 野營大會가 지난 29일, 30일 양일간에 걸쳐 江華島 傳燈寺에서 열렸다。○…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1백여명이 참가한 野營大會는 호국단 간부의 자질함양과 리더쉽 함양을 위해 열렸다。다음 글은 지난 護國團野營大會에서 鄭允武(學生處長) 박사가 發表한 「現代政治戰略의 本質」과 護國學徒의 使命」을 演題로한 特講內容을 초록한 것이다。


◇筆者

現代政治戰略의 本質

鄭 允 武 (學生處長·政博)

一

戰後世界의 最大特徵은 냉전체제에 의해 모든 戰爭이 局地로 한정되면서 인류는第3차 大戰을 회피해 왔다는 점이다。

冷戰이란 극히 政治的인싸움, 즉 美蘇兩國이 싸우지않는(혹은 싸울수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개된 政治戰爭인 것이다。

그 反面 전쟁의 형태는다양화하여 「게릴라」, 「테러」, 파괴활동등의 「非正規戰爭」이증대함과 더불어 心理戰, 宣傳戰, 經濟戰과 같은 「非軍事的 수단」이 전략의 일환으로서 커다란 비중을 점하게 되였다는것도 「戰後」의 중요한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戰後에 있어서 戰略은 규모의 大小를막론하고 國民및 國家活動의모든면을 포함하여 보래 전쟁을 도구로 사용하여야 될 地位에 있는 政治까지도 그수단으로 삼는 방대한 배카니즘속에 성립되고 있는 것이다。

資本, 技術, 文化, 스포츠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敵을 압도하려는 「全面戰略」은 美蘇를 중심으로 한 冷戰에있어 하나의 極限을 형성하였다。

그러한 美蘇의 冷戰戰略이 戰後의 世界에 戰前에는 생각도 할수 없었던 集團防衛機構라는 망을 낳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冷戰體制가 붕괴되기 시작한 오늘날 佛蘭西의 NATO脫退나 中蘇對立에서 볼수 있는 바와같이 집단방위체제도 또한 크게 동요되기 시작한 것이다。

二

이러한 冷戰戰略에 對한 안더 테제로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中國의 共產化과정에서 戰略으로서 確立되어 印支戰爭, 쿠바戰爭, 알제리戰爭의 過程을 겪고 베트남戰爭에로 이어진 「人民戰爭」, 具體的으로는 游擊戰略을 주축으로 하는 政治戰爭인 것이다。

政治는 「피를 흘리지 않는 戰爭」이며 「戰爭은 피를 흘리는 政治」로서 政治와 戰爭이 表裏一體가 되어 人類發展의 역사를 점철하고 있다고 主張하는 毛澤東의 基本戰略은 人民戰爭理論의 기틀이 되고 있다。

그는 소위 中國革命戰爭의 戰略問題에서 共產主義者로서 世界革命思想을 追求하는 立場에서 피를 흘리든지 흘리지 않든지 간에 人類社會에 「階級」과 「國家」가 存在하는限 戰爭은 끝나지 않는것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民衆의 마음을잡아라」고 외친 人民戰爭戰略은 抗日戰爭에 이어 國共內戰에 있어 奇跡的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더 나아가 베트민의 對佛戰爭, 베트콩이 地上最强을 자랑하는 美軍을相對로 기어이 印支半島를 赤化시킨 原動力이 되었다。

冷戰이 핵무기에 의한 全面戰爭을 抑止시킨 강자의 정치전쟁이라고 한다면 그와 대조적으로 人民戰爭은 군사적 目的인 政治活動에 重點을 지향한다는데 共通性을 지닌다。

三

戰後의 世界를 움직인 戰略을 分析할때 政治戰略—毛澤東이 말하는 피흘리지않는 戰爭의 役割이 飛躍的으로增大되고있다。또한 그것은 現代戰의 基本的 特質이 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未來의 方向을 示唆하고 있는것이다。

韓半島는 冷戰構造 最後의 壁
越南, 軍事戰아닌 政治戰서 敗亡
冷戰 核武器에 依한 强者의 政治戰爭

성봉 김성배 박사 회갑기념 문집

성봉 김성배박사 회갑기념 문집이 「東岳語文論集」 10輯에 이어 「회갑기념 논문집」 「새국어교육」 「청람실의 인연」 「떼보의 그림」 등도 출간되었다。

論文集등 5卷이나 發刊

회갑기념 논문집

논문집은 내용상으로 분류, 국어학편에 「平安方言研究序說」(金炳培) 등 13편의 논문이 실려 모두 50여편의 교육편에는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김지용) 등 7편의 논문이 실려 있고 문학편에는 「蔡茂植小說의 二元性」(丘仁煥) 등 7편, 「고전문학편에는 「雙劍奇逢과 李氏代錄」(金起東) 등 16편, 민속학편에는 「韓日妊婦의 禁忌」(金榮敦) 등 5편이 실려 모두 50여편의 무게있는논문이수록되었다。

새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회 (會長=김성배박사)가 발행하는 「새국어교육」 25·26 합병호가 성봉 김성배박사 회갑기념특집으로출간되었다。회 국어교육, 국어학, 국문학, 국문학, 민속학 분야의 논문이 실려있다。30여편의 논문이 실려있다。

청람실의 인연

각계에서 소요로 김성배박사를 단편적인 문집이다。제1부는 각계에서 보내온 시와시조를 묶어 「성봉선생 김성배박사를 들려싼 친지, 글과 사진」 등 모두 70여편이 실린 「떼보의 그림」은 한 향수 같은 「우리 것」에 대한 깊은 애정이 깃들어 있다。

떼보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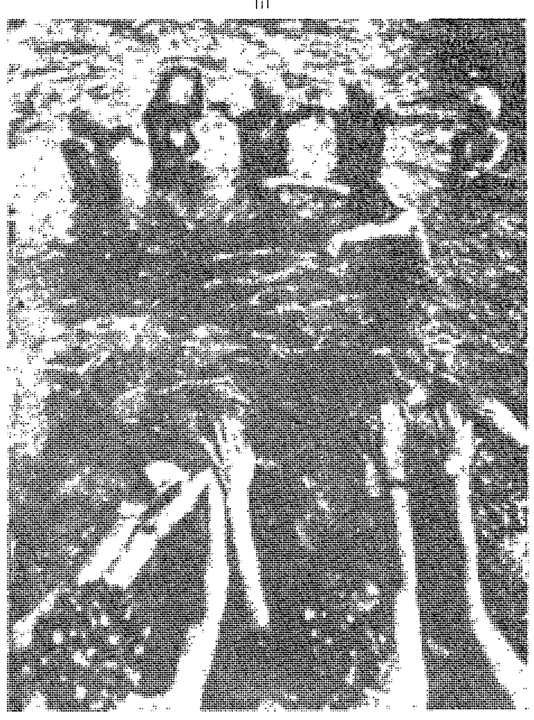
「떼보의 그림」은 김성배박사 회갑기념수상집이다。박사의 그림 「목탁소리 은은히」, 「떼보의 그림」 「모파의 속삭인 「나라 겨레 말」 「아름다운 유산」 등 편의상 5부로 나누어 모두 70여편의 글과 그림 은 김성배박사 가족들의 속삭인 글이 실려 있다。

學校敎育의 問題

뿐 아니라 創造力이 있고 사람다우며 感受性이 풍부한 生活을 할수 있는 인간을 育成 ……○
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學校는「自由롭고 人間다움을 배양하는 敎育」을 할수 있는 ……○
곳이어야 하며「자기 자신을 敎育할수있는 人間」을 키워나가는 장소이어야 할것이다. ……○
<金乘玉敎授 基調講演中에서—> ……○

第8回 敎育問題 심포지움 發表要旨 특집

基調講演



◇정서순화는 人間化의 첨경— 적절한 여가 선용이 주어져야 한다.

創造하는 人間育成이 學校敎育의 課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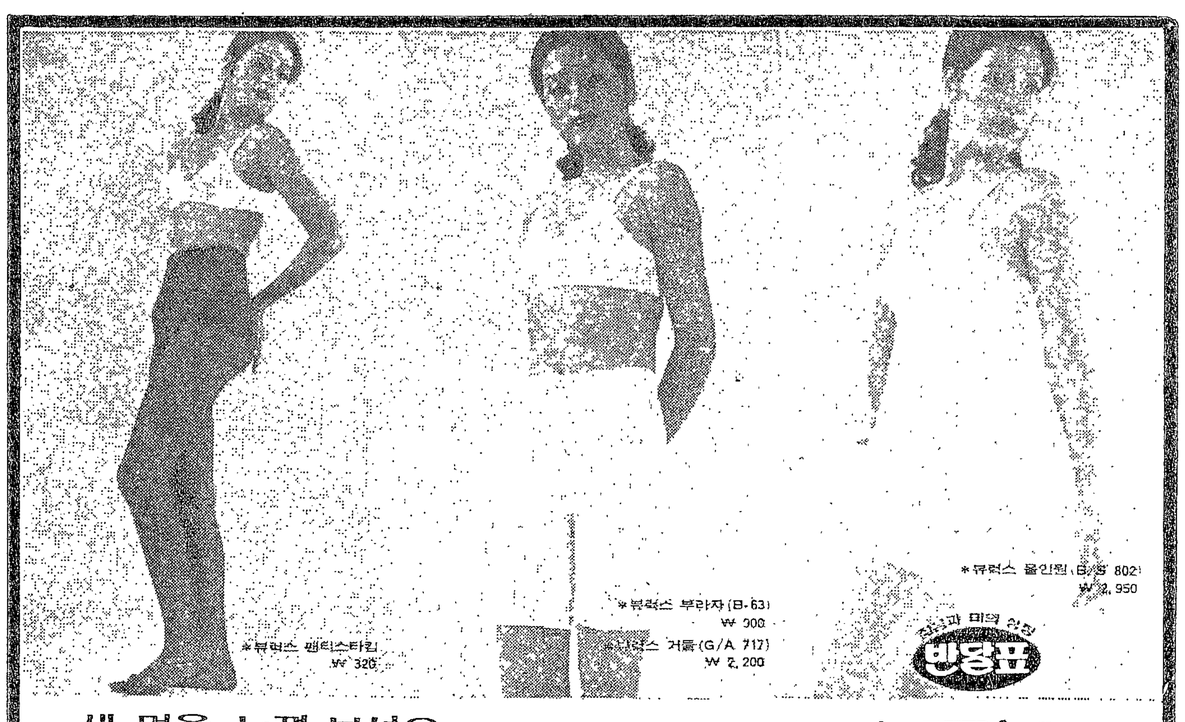
內在的 動機의 學習觀가져야 「學校의 人間化」가 論議의 觀點

金乘玉
◇哲博·師範大敎授

學校內的要因

洪雄善
◇哲博·延大 文理大學長

敎師·學生間의 相互調化를
學校는 즐겁고 흥겨운 共同生活體
敎育課程 多樣化해야



새 멋을 느껴 보셔요
현대는 토털핫손의 시대—。
얼굴, 의상과 함께 균형있는
몸매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됩니다。
뛰어난 신축성, 타이트한 착용감,
뷰럭스부라자, 뷰럭스거들로
당신의 몸매에 새멋을 느껴보셔요。

뷰럭스 부라자 (B-63)
P.P.컵을 사용한 제품으로 착용시 안정감을 줄뿐만 아니라 가슴의 곡선미를 자연스럽게 살려주는 제품.
뷰럭스 거들 (G/A 717)
스판덱스 원단으로 제직된 거들로서 신축성이 좋아 감촉이 부드럽고 우아하며 히프모양을 균형있게 잡아 줍니다.

뷰럭스
스 타 킹
림 지 린
하운디이스
유영산업

* 전국 백화점 및 뷰럭스 체인스토아 (반당표)에서 판매합니다. 문의전화 : 영업부 793-6743

졸업환송회 · 그룹파티 · 고팅 · 각종 모임은
방대한 400석의 팽대팽대에서 ……
성지전기
☎52·3629
팽대팽대
맛갈스런 분위기에서
저렴한가격으로 흐뭇한
초저녁을 즐기실까요?
연예가족
조명기와 기계들
주 원과 엔젤스
국내일류싱거 대거출연
청계7가 금성판매장
지하
팽대팽대
동대문
청계천7가
12
6
평화상가
서울운동장
우촌각

사은회
선생님께 감사의 정을 드립니다.
학창의 갖가지 추억을 되새기며
선생님, 벗들과 앞날을 기약하는 자리
사은회.
즐이 있는 레스토랑 파인·힐
에서 가져 주십시요.
어떠한 모임에도
레스토랑 파인·힐은
흐뭇한 시간을 마련해 드립니다.
pine hill
ROAST BEEF RESTAURANT
본점 : 26-4644, 4486, 4404
종로지점 : 72-3162, 7918, 7919

특집 第8回 教育問題 심포지움 發表要旨

人間化를 위한

○…… 오늘날 우리나라의 學校教育은 受驗공부를 위한 教育, 就職, 學歷취득을 위한 교육에만 치
○…… 중하고 본연의 教育이 상실되고 말았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學校教育이 너무나 手段的
○…… 目標의 측면에만 힘을 기울이고 自己實現的 目標라는 측면을 전혀 도외시하고 있는 현
○…… 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教育이란 단지 生計를 이어나가는 人間을 만드는 것

學校外的要因

社會의 非人間化要因 팽배

眞理, 倫理 떠난 劃一性 문제

物質的 價値판단 배제돼야

韓明希
◇哲博·師範大教授

行政的側面

循環性있는 行政 運營을

풍부한 德養, 필수 條件으로

全人教育 위한 基盤 조성해야

康吉秀
◇文博·서울大教授

◇고도의 産業化 時代에 人間性 함양은 幼兒期부터 필요하다.

= 제15회 대 학술상 =

祝 祝

무궁한 繁榮과 發展을 祈願합니다

고려화학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상영
국진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기화
대한합섬화학주식회사 전무이사 김유만
대한화스나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구종수
도서출판민중서관 부사장 김명도
삼본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덕상
태평양콘트롤즈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 홍순지
한국스레트공업주식회사 이사 김용환
법인단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 고제훈
대도선사 추지 이혜성
제일판지공업(주) 대표이사 장세현

第15回 本社 學術賞 特輯

男女平等과 家族法上의 問題點

社會科學分野 本賞 受賞作

I、序論

母系中心의 社會에서 누렸다고 하는 女性의 權利는 古代 家父長制的 社會를 거치면서 근대에 이르도록 거의 男性에게 이양되었다.

男女로 구성되어 있는 인류는 兩性이 差別없이 同等한 位置에 섰을때 자기의 潛在能力을 最大限度로 發揮할수 있고 자신에 대한 滿足도 가져와서 社會는 人類의 目的에 부합되는 곳으로 정상적인 발전을 계속할수 있을 것이나 家父長制的 社會의 성립이래 女性은 평등한 인간으로서 同等한 人格의 所有者로서 存在해 오지 못했다. 이것은 여성의 타고난 素質啓發에 중대한 저해요인이 되었고, 남성의 長點인 持久的 인내력과 여성의 장점인 섬세한 直觀的 觀察力등의 적정한 결합을 발휘하여 인간사회의 정상적이고 건전한 調和發達에 커다란 장벽이 되어 오기도 했다.

家父長制的 사회에서 여성은 出産, 育兒, 家事勞動에서 그 천직을 발휘할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던것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이나 社會의 發展에 의해서 男女의 신체적인 차별은 그 의의를 상실해 가고있고, 社會의 복잡화에 따라 가정밖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 점차로 增大되고 있는 상태하에서 남녀의 차별대우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를 自覺한 인류는 男女平等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고, 1945년 이래 韓國에도 人格平等원칙이 법률에 적용됨으로써 그동안 억눌렸던 人權은 해방되었으며, 參政權의 인정등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가 法律上 인정되었다.

그러나 家族法(民法 제4·5編)에서만들은 봉건적 관습이 그대로 成文化된 것이 탈기 때문에 憲法에서 보장하는 남녀平等이 家族法에 충실히 적용되지 못하는 현상이 곳곳에 있으며 따라서 韓國에서는 가족법의 改正문제가 남녀平等운동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本稿에서는 「男女平等이란 男女의 不合理한 差別을 除去하여 人間으로서의 本性을 尊重하고 그 무한한 可能性의 伸張·調和·發達에 부응한 制約을 두어 萎縮시키지 말자는 人格平等·人間尊重의 思想에서 出發한다 (이것이 勞動의 搾取를 爲해서 北韓에서 주장하는 男女平等—勞動에 있어서의 平等—과 根本的인 差異點이다.) 라는 大原則에 바탕을두고 우선 女權 신장운동의 略史와 그로부터 획득한 결과로써 나타난 憲法的 保障의 의미를 밝힌뒤 現行 家族法중 男女平等의 實現을 저해하는 主要規定들을 찾아 批判함으로써 男女平等의 올바른 方向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女權 伸張運動의 略史

①西歐의 女權 伸張運動의 略史

르네상스를 맞아 人間의 말폐된 肉體的 욕망은 解放期를 맞이했고 이를 계기로 女性解放運動이 전개되려는 듯한 조짐이 보였으나 女權伸張의 렘포는 매우 느린 것이었서 3世紀 뒤인 18世紀 啓蒙時代에 와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며 여기서도 많은 反對論에 부딪친다. 룻소는 「社會契約論」에서 「女性은 男性에게 從屬되어야 할 性」으로써 規定했고 로크도 市民社會에 있어서 「家長權」은 男性의 당연한 權利로 인정했으나, 룻소의 天賦人權說은 理論上 女性에게도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男性의 주장하는데 不過했던 것이다.

또한 18세기말 佛革命당시에 오랑브드 구우제가 「女性의 權利宣言」을 발표하고 斷頭臺의 연단에설 권리를 주장하다가 「모든 人間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모든 生存한다…」는 인권선언 제1조의 헤택이 여성에게는 돌아오지 않았다.

Napoleon民法典은 가부장으로서 남편의 우위에 입각하여 ①妻의 무능력제도 ②家長의 부부공유재산의 단독관리권 ③父에의한 親權의 단독행사등을 규정했던 남녀불평등 입법이었으니 이러하여 佛革命과 함께 旗幟로 올리려던 여성신장은 좌절되고 말았다.

이와같이 男女平等은 보편화되지 못하였으나 產業革命이후에 女性이 社會的 生產에 참여하게 되어 그 經濟的 지위의 향상과 社會活動에 참가가 가능해지자 女性의 권리가 주장되고 이것은 점차적으로 실천되어 왔다.

그후 英國의 밀은 「女性의 從屬」(On the Subjection of Women, 1869)에서 有產女性의 公的生活(政治的 活動)과 私的生活(財產權의 보장 離婚의 自由認定)에서의 法的平等을 말하여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면실공히 女性解放論의 主流를 이루게 된다.

女性에게 參政權을 인정한 것이야말로 女權伸張에 있어서 불멸의 금자탑이라 할 것이나, 佛革命당시 「홍슬세」가 「人間精神進步의 歷史」에서 여성의 參政權 인정을 주장한 이래 너무도 진전이 느려서 19세기말~20세기초에 와서야 서서히 인정받게 된다. 男性優位의 사회구조를 위협하는 과격한 政治參與의 운동이 묵인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또한 역경을 겪거서 얻은 당시 女性의 參政權은 연령·신분·財產의 有無등에 대한 차별이 있기는했으나 女權의 伸張에 커다란 무기가 되어온 것이며, 1890년 美國은 「홀튼」이 女性의 參政權을 인정한 것이야말로 「女權伸張에 있어서 불멸의 금자탑」이라 할 것이나, 佛革命당시 「홍슬세」가 「人間精神進步의 歷史」에서 여성의 參政權 인정을 주장한 이래 너무도 진전이 느려서 19세기말~20세기초에 와서야 서서히 인정받게 된다. 男性優位의 사회구조를 위협하는 과격한 政治參與의 운동이 묵인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또한 「强姦罪의 客體를 婦女만으로 規定한 것은 男女의 身體的 特徵을 考慮한 것으로써 違憲이 아니다.」라는 大法院의 判決(1967年2月2日) 에 근거있는 差別取扱이라고 본다.

다음에 憲法 第28條4項에 의거하여 勤勞基準法등에서는 많은 女性保護規定을 두고 있으나 同一賃金制의 共同生活에 필요한 費用은 먼저 夫婦의 共有財產으로 부담하고, 다음에 서로의 固有財產중에서 分擔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四) 離婚法上의 問題

우리의 離婚法은 家長制에 기초를 둔 남자專權的 이혼이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李朝時代에 있어서는 大明律에의한 中國의 이혼법이 적용되었을 뿐, 이혼에 관한 法은 制定하지 않았고, 儒敎的 道德觀에따라 정책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었으며 남성本位의 일방적인 이혼제도만 인정되었다.

日帝下에서도 1923년 이후 協議離婚制를 인정했으나 이도 夫의 專權的 이혼을 허용하는 결과밖에 되지못했다.

현행 이혼법은 協議이혼·裁判上이혼을 모두 인정하여 外觀上 부부平等主義에 입각한 制度처럼 보이나 夫婦別產制의 미비점, 또한 子의 1차적인 親權者는 父이고(民法제909條1항), 이혼後 養育費負担도 協議가 없는한 원칙적으로 父에게 있는 것(民法 제837조1항) 등의 이유로 적어도 이혼의 自由는 모든 것의 포기요, 이는 事實上 크게 제한받고있는 것이다.

우선 夫婦別產制의 효과적인 개정과 運營, 離婚時 財產分割請求權등의 立法이 필요하고, 子의 養育責任도 편의에 따라 안배하여 평실공히 男女平等原則에 입각한 離婚의 自由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III、憲法上 男女平等의 意味

남녀의 차별을 극단적으로 고집하던 封建法을 깨뜨리고 생성된 近代法은 많은 불평등적인 구속을 타파하였지만 하나 現在에 와선 많은 學者들이 이의 廢止를 주장하고 있다.

法改正은 平等實現의 條件

女性, 平等한 人格主體 여야

現 잔재 的 封建 家族法은 法改正을 주로 촉구했다

學論文集을 주로 촉구했다고 밝혀 이번 本賞수상의 영광이 오랜 각고의 產物임을 알시했다.

지난 제1회 社會科學學術發表會에서 「男女平等과 民法改正」의 문제점」이란 제목의 論文으로 최우수상을 차지한 바도 있는 禹군은 「권리의 보장을 위한 투쟁은 모든 국민의 의식」이란에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각종 법의 제약점을 개선하는데 一助가 될수있는法官이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피력했다.

55년 경기도 포천 출생, 禹昌禮(69세) 氏의 4男 2女중 3男. <哲>

論文준비 入學時부터 學術發表에서도 受賞

『별로 좋은 論文도 아닙니다…더욱 精進하라는채찍으로 알고 이제까지 저를 키워준 모든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분부에 전념하겠다는 學究的 자세가엿보인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男女의 법률적 차별은 사회의 정상적발전을 저해해왔다고 말하며 어떤法律的 平等보다는 실질적인 女權의 신장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여성들의 확고한 자각을 촉구하는 한편 남성들에게는 남의 權利를 억압하면서 누리는 權利는 特權은 權利로서의價値가없다고 말하며 一針을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男女平等을 저해하는 요소로 民法 특히 家族法상에많은 봉건적 잔재가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이에 改正과 同性同本 不婚制완화 同一姓異貫者의 혼인까지도 금혼고, 高宗光武9년(1905)에는 刑法大典 57條에 同姓同本의 혼인을 금함으로써 儒敎를 國是로 하는 李朝時代에 있어서 同姓不婚의 원칙은 婚姻法上 중요한 원칙으로 규정되었다.

현재에 와서도 이를 고집하는 근거로서 優生學的 유전을 들지만 통계적숫자에서 의학면 5寸을 초월하는자사이에서 혼인을 할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論證되고 이러한 근거에 근거에는 禁婚範圍를 이념을 加味하여 자유라는 조절하고있다.

(프랑스·스위스는 3촌까지, 영국·일본은 直系姻戚과 3촌까지만, 중국에서 母系血族과 4촌까지의 姻戚까지)

그런데 한국에서는 同性 동본이라면 무조건 금혼함으로써 父系혈족간에는 아무리 촌수가 멀어도 혼인을 못하고, 반영성은 원칙적으로 母系의 血緣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남녀평등원칙을 무시하는 제도이다.

現行 民法 制定當時에 國會의 法制司法委員會의 審議에서는 同姓不婚의 原則을 廢止하고 近親婚에 限해서만 禁婚期를 修正했는데 이 반영 婚姻 것으로 政府原案을 部分的으로 否決되었다고 하나 現在에 와선 많은 學者들이 이의 廢止, 主張하고 있다.

(二) 戶主制度의 問題

李朝時代의 봉건적인 土地經濟體制와 儒敎思想에 기초한 家父長制的 「家族制度」下에서 戶主는 그 家의 상징이요, 系統을 계승하는 자로서 그 家를 代表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者였다. 그러나 現代의 核家族制度下에서 가족의 가치를 결정짓는 실체는 戶主의 家族에대한 經濟的 부양의무를 보면, 호주가 않는 家族을 이끌고 있을 경우나, 봉건적인 土地經濟制의 붕괴로 經濟的 근거를 상실한 戶主에게 부양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실상 별의미가 없는 것이고 法律上 부양의무가 정해져 있다해서 가족을부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 필요가 없음을 보면, 호주가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주권적인 役割을 가지 않는 家族을 이 女性의 地位向上을 위한 問題點을 제시하여 解決의 方向을 設定하는등 선구적인 役割을 했다.

또한 基督敎人의 獻身的인 努力에 의한 女性敎育機關의 設置도 중요한 촉진제가 되었다고 본다. (스크랜톤. 女史의 梨花學堂 設立등)

積極的인 女性解放運動은 1894년 東學運動과 甲午更張의 改革案중에 寡婦의 任意改嫁를 許하는 條目을 둔것이 그 효시라 볼수 있다. 1898년 男女同權과 言文學校 設立을 主張하는 韓國 최초의 女性團體인 贊揚會의 組織은 전통적인 家庭婦人들에 의한 자발적인 女權宣言으로서 韓國女性運動史에 있어서 劃期的인 사건이었다.

그들은 스스로 「婦人協會」라 부르고 男性들의 獨立協會와 對比시켰으며 順成女學校를 설립하고 萬民共同會에 참여함으로써, 이제까지 儒敎的 倫理에 매여 살던 女性들이 지위를 박차고 새시대를 향해 智識과 힘을 합한 前衛的인 女性團體였다.

1907년 國債報償運動에 女性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女性이 權利에 있어서 평등할 뿐만 아니라 義務에 있어서도 평등함을 주장했던 快步였으며 3·1運動당시 女性이 國內外에서 보여준 抗日鬪爭은 놀라운 것이었다.

1927년에 조직된 「朝友會」는 女性에 대한 社會的·法律的 차별의 철폐, 婦人勞動의 임금차별철폐, 조혼금지및 혼인의 자유, 부인의 夜業·위험노동의 禁止, 부인의 產前產後 임금지불등을 行動綱領으로 하여 근대女性運動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당시의 女性團體가 주로 基督敎 宣敎事業의 일익으로 또는 外國에서 新學問·新文化를배워온 소위 「新女性」에 의해 이룩된 것이기 때문에 초기의 社會參與는 民主的 자각에 의거한 것보다는 「儒敎的 倫理」에 의한 「家族制度」에 의해 구속되어 있었고 그 활동범위도 주로 敎育·慈善·文藝·宣敎·看護·産婆·音樂·美術·家庭·婦人會·禮拜·聖書·祈禱·傳道·社會·衛生·禁酒·禁煙·貞操·純潔·愛國·獨立·自治·自由·平等·博愛·犧牲·奉仕·忠誠·勤儉·貞淑·愛人·愛國·愛主·愛隣·愛己·愛家·愛敎·愛國·愛人·愛己·愛主·愛隣

第15回 本社 學術賞 特輯

山神信仰의 起源과 신라의 護國思想

崔琮錫
<佛教大·佛教科>

I、序言

韓國文化의 深層을 形成하고있는 土俗文化는 古代宗教 즉 東北아시아內陸 유라시아 일대에 퍼져있는 原始的 宗教現象인 샤마니즘(Shmanism)에 그 뿌리를 두고, 韓國的 특수성을 지니게 된 文化現象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것이다.

이러한 土俗文化는 韓國文化의 核을 이루면서 繼承되고 時代의 變移에 따라 變容되었을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우리는 土俗文化에서 古代韓國人들의 生活과 神話와 宗教的 祭禮가 서로 얽힌 文化現象을 찾아낼 수 있으며, 또한 시대적 요구에 의하여, 혹은 外來宗教와의 同和作用에 의하여 변질된 土俗文化 형태속에서 새로운文化的 傳承의 脈과 역사적 時代精神의 단면을 읽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우리의 文化的 고향과 意識의 深部에 잠겨있는 잊어버린 얼굴을 찾아내어 우리 시대에 있어서 傳統文化는 어떠한 양상으로 계승되어야 할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될 것이다.

本稿는 이런 견지에서, 먼저 土俗文化중에서도 가장 始源的인 종교현상으로 나타나는 山神信仰의 기원과 성격을 고찰하고,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新羅에 있어서 그 山神은 어떤 성격을 띄게되며, 그것은 다시 佛教思想과의 習合過程을 통해 어떠한 護國神的 變容을 수행하게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山神의 起源과 性格

1、Totemism과 山神

古代에 있어서 韓半島와 東北滿洲에 걸쳐 居住하던 種族은 주로 濊貊人들로서 狩獵과 원시적인 牧畜農耕을 생활수단으로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들은 未開時代에 있어 주로 狩獵生活을 영위하였기에 山岳은 그들 활동의 주된 場所였다. 衣·食·住의 대부분을 山岳에 의지하면서 산악은 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되었고, 산악에서 棲息하는 猛獸들을 가려서 聖獸로 숭배되며, 그것은 다시 佛教思想과의 習合過程을 통해 어떠한 護國神的 變容을 수행하게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호랑이가 차츰 擬人化하여 추앙되었다는 信仰對象의 槪念的 進化를 말함인데 그 변화의 動機 說明이 全無하며 모호할 뿐이다.

2、天神降臨의 檀君神話와 山神

山神信仰의 發生은 Totem崇拜에 연유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뒤에 派生된 虎와 熊의 關係, 騎虎老人의 정체를 문제삼았다. 우리는 이제 이 두 문제의 해결을 위한 作業으로 神話를 읽을必要를 느낀다. 神話는 原始民族의 世界觀의 表現인 동시에 歷史의 記述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原始民族의 未開心에 의하여 이야기되는 神話라 할지라도 그것은 당시에 있어서 전체세계인고 現實이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神話는 역사적 사실로 간주될 수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山神信仰의 형성이 神話發生과 軌를 같이 한다는 문맥으로 볼 때 神話는 山神의 起源을 밝히고 그 성격을 찾아내는 열쇠로서 매우 중요한 意味를 가진다. 즉 古代人의 生活과 宗教現象을 상징적으로表現한 神話의 構造를 通하여 당시의信仰樣相을 찾아볼수 있다는 可能의 論理는 자연스럽게 채택되어 마땅한 것이다.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라는 귀절을 檀君神話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곧 Totem部族과 虎Totem部族이 서로 같이 살았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北方 아시아 民族중 곧 Totem部族의 南下와 고대 한족중 虎 Totem이 서로 結合하여 東南아로 이동하였을 알시한다고 볼수 있다. 심로 北方 아시아民族, 즉 곧 Totem部族은 漢의 發展 팽창에따라 北으로 또는 東北으로 이동하였고 혹은 잔류하여 同化하였다. 이것은 濊族의 發展方向으로 미루어 北方族의 이동경로를 참작할수 있는 것이다. 中國 山東 武氏祠堂의 畵像石에는 호랑이에게서 사람이 태어나는 그림이 있는데, 이로서 虎와 熊의 關係를 Totem部族의 이동으로써 理解하는 단서를 잡게된다. 따라서 「熊虎同穴」의 의미와 熊山神이 虎山神으로 變貌하는 것은 Totem部族의 結合과 移動에 기인함을 미루하고, 마연하나마,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山神의 모습으로서 떠두되어 虎를 使者로 거느리는 老人을 다시 檀君神話의 意味를 따라 찾아내 보기로 하자.

「昔有桓因(謂帝釋也) 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往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 神壇樹下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生命主病主刑主善惡…中略…熊女者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壇君王儉…中略…始稱朝鮮 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中略…壇君乃移藏唐京 後還隱於阿斯達 爲山神…下略…」

단군신화는 어느 한 시대를 한정하여 서술한 것이 아니고 오랜 時日을 두고 形成된 古代 原始信仰을 표현하는 우리 民族의 神話로 이해할때, 많은 의미表象을 示唆하고 있다. 단군신화의 全體 要旨는 天帝의 자손 단군이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다가 隱退하여 山神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들에 대한 신앙이, 즉 天神信仰이 고대인의 신앙형태로 나타난 것을 알수 있다. 桓因이란 본래 佛教의 護法神으로 33天의 主神 釋迦提婆因陀羅 즉 釋帝桓因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말에서 「환(桓)」은 광명한 하늘의 神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音에 가까운 한자로 표기되었던 것이다. 이는 곧 재래의 天上개념이 佛教의 天上개념과 함께 체계화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桓因~桓雄은 帝釋~四天王의 位階와 일치되고 있음을 보면 알수 있을 것이다.

天神 桓因의 아들인 桓雄은 風伯, 雨師, 雲師를 거느리고 地上으로 降臨한다. 風·雨·雲은 農耕과 관계있는 자연현상을 뜻하는 것인데 원시 農耕社會와 가장 밀접한 관계의 것들이다. 따라서 이자연현상을 주관하는 桓雄은 농경사회로 변천된 고대사회에서 至高한 神으로 신앙된다. 또한 桓雄은 곡물을 지상으로 가지고 내려온 穀物栽培民의 農耕神話로 파악될때 桓因은 농경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닌 太陽神(하늘)이며, 桓雄의 地上에로의 降臨은 穀物栽培民의 原初的 播種의 신화적 投射로 보기도 한다. 그때까지 農耕民들에게 있어 수렵사회로부터 形成되어 전승되어 오던 動物 토템 신앙의 개념이 태양신(桓因)과 관련하여 多産과 풍요를 목적으로 하는 농경신, 즉 地神 地母觀念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熊虎의 토템신앙 개념이 熊女로 再生되어 太陽神의 아들 桓雄과 結合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象徵的으로 태양신과 地母神의 결합에서 풍성한 農作物, 많은 家畜, 子息, 富, 降雨를 구하는 祭禮를 뜻하는것이다.

이제 우리는 조금이나마 山神의 윤곽을 그릴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초기의 산신은 애니미즘적 산악숭배였다가 수렵사회 속에서 熊, 虎의 토템적 신앙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다시농경사회로 변천되면서 농경신적인 天神降臨의 결정적 태양신과 결합하는 여성적 地母神으로 熊虎의 성격이 발전한 것을 추적하였다. 따라서 山神圖에서 보여지는 백발노인이란 熊虎의 女신이란 의미와 결합한 男性으로서의 천신이라고 해본다. 이는 단군신화 신앙의 추정 독적이 降雨, 子孫守護, 救病 풍요등으로서 곡물재배민들의 願望을 위한 部落祭로 전승되었다는 것으로 보아도 알수 있다. 그러므로 「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하였다는 「三國遺事」의 論理가 조금도 어색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3、「ㅂㄹ」思想과 山神의 性

韓國山神의 原型으로서 檀君이 어떤 意味構造를 갖고 어떠한 思想的 背景을 가지며 발전하는가를 究明할 때 비로소 단군신화의 位置와 性格이 드러나고, 古代信仰에 있어 韓民族이 추구하던 宗教的 希願이 무엇이였나 더들어 볼 수 있겠다.

檀君이 隆臨한 곳이 太伯山이며 檀君의 都邑을 세운 곳이 白岳山 阿斯達이었다. 즉 白(伯)山이 神話의 舞臺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白」이란 뜻은 崔南善氏의 「不咸文化論」에서 철명된 것과 같이 「白」은 「ㅂㄹ」으로서 韓民族의 宗教的 象徵이 이룬다. 古代 韓國에서는 太陽, 밝음, 光明을 內在的으로 所有하면서 태양 숭배의 意味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ㅂㄹ」의 훈독 「ㅂㄹ」의 훈독 「ㅂㄹ」의 훈독

第15回 學術賞 創作分野 奬勵賞 受賞作

한 없는 회색빛 거짓말

李喜成 〈佛敎大 哲學科〉

아직도 나는 어디로 갈지 정하지못하고 있었다. 햇빛은 너무뜨거워서 주위의 모든 것을 사형선고라도 받은듯이 곡짝않고 있었다. 공기에 습기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너무 장한 햇빛 때문에 뚫더리가 멍했지만 등이 뜨거워져서 나는 은밀한 주름진 곳으로 땀이 배어나와 햇빛에 반짝였다. 덥진 않았다. 어떻게 할까. 아까부터 이 문장만을 되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나는 완전한 백치상태에서 깨어났고 마치 희발한 공기 속에 있는것처럼 답답해졌다. 바로 옆에 시계탑이 있었다. 시계탑의 그림자가 진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약속을 생각하고있을 것이다. 내가 앉아있는 쇠파이프의 자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경계선을 긋기 위해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광장 중앙까지 들어서 있었지만 그위에 앉아있는 사람은 나와 동산비둘기뿐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청년들 뿐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멋있게 차려입고 있었다. 나는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았다. 그러자 내 기분은 비참해졌다. 여기에서 내인생이 끝날것처럼 겁이 났고, 된통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었다. 전에도 여러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때마다 나는 무엇을 해야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앞만 생각해도 나는태어난 때가 한번도 없었던 것같다. 항상 대상도 없는 미움으로 땀을 흘릴 지경이었고 금방 병에라도 걸려버리지 않을까하고 의심하거나 분명 속은게야 하고 분해하는 것이었다. 그의말대로 좋일 울먹거리며 실수만 저지르고 있었다. 왜 그 모양이었을까? 아, 이런생각은 나를 심한 공지로 끌게 뻔하다. 이젠 여행할 생각은 완전히 잊어버렸다. 대합실로 들락거리는 사람들은 모두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있는듯이 조금도 망설리는 기색이 없었다. 그들은 한 순간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이곳저곳을 왔다갔다하고 있으며, 모두 무엇인가 몰두해있는 듯했고 무엇을 해야할까라는 생각은 그들에게 조금도 위협적인 물음이 아닌 것같았다.

내가 이곳에 아직도 있다는것이 그들을 불쾌하게 만들것이라는 불안으로 나는 고통스러워졌다. 그 불안을 없애기위해 나는 궁정하는 마음을 가져보려했지만 그것은 너무 성급하고 어리애같은 생각이었다. 그때 내 앞에 택시가 와섰고 운전수가 날기웃거렸다. 내겐 그것이 이곳에서 나가달라는 신호처럼 보였기 때문에 일어서고 말았다. 운전수는 내가 일어선 것이 택시를 타려는 것인줄알고 얼른 택시문을 열었다. 나는 그의 봉사에 할 수 없는 기분이 되어 택시에 올랐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 행동이 부끄러운 것같아서 운전수를 보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듯했다. 운전수는 나이때문인지, 날씨때문인지 꽤 지겨운 얼굴을 하고 어디까지 가시냐고 물었다. 나는 당황했지만 곧 아무흐렐로나 가자고 했고 조금 후에 다시 우이동쪽에요 하고 덧붙였다. 택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것을 내게 보장시키려는듯 천천히 미끄러져 온갖 차량들으로 들어섰다.

나는 너무 한가롭기라도 하여 지겨워진 것같았다. 사실 한가로운 것 때문에 지겨워진다는 것은 그럴 듯하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주위에 차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보다고 생각해버렸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있는지 통모르고 있었다. 도대체 호텔에 혼자 가서 뭘 어쩌겠다는 것일까? 혼자! 왜 이제와서 이 분명한 단어가 생각났을까? 정작 기차를 못탄 것도 순전히 그 이유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우울해졌다.

택시는 역시 달리고있었고, 가끔 멈추어 앞차에 밀리다가 다시 달렸고, 나는 또 아무렇게나 앉아서 택시에몸을 맡기고있었다. 결국 택시는 큰길에서 작은 아스팔트길로 들어섰고 거기서 다시 택시를 큰길로 끄집어낸다는 것은 더욱더 서툰 일이 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부동(不動)이라는 말말을 생각하고있었기 때문이다. 택시는 잘포장된 숲길로 기어오르고 있었다. 잠시후엔 정문을 지나 조그만 연못을 가진 주차장에 섰다. 나는 마치 계획된 것이란는 듯 정확히 택시값을치렀다. 돈을 센다는 일은 가장 쉬운일이다. 호텔현관으로 가는동안 내 기분은 좀 나아졌다. 호텔은 숲으로 둘려싸인 하얀 5층건물로 아주 깨끗해보였기 때문이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가방을 문옆에 둔채 세면실로 들어갔다. 수돗물을 틀었다. 나는 가 귀찮았다. 나는 찬 물에 손을 담그고 다가가, 다시 나왔다. 방은 꼭 필요한물건들만 있었다. 마치 인원실같았다. 언젠가 아픈데는 한 군데도 없이 입원해있기를 바랬던 적이있었다. 이제 그 꼴이 되었다. 기분은 전혀 들지 않았다. 배가고픔려는 것이 우선하였다. 에어콘을 켜놓고 침대에 누워 메뉴에서 햄샌드위치를 시켰다. 잠시 후에 보이가 왔는데 음식자라도 부수고싶었다. 나는 벌떡 일어났고 곧 자리에 앉았다. 싸움이 하고싶다는 생각이 왜 났을까? 바로 그 전에 무슨 생각을 하고있었기에 이런기분이 되었을까? 도대체 나는 이렇게 좀더 특별한 기분이 되어 깜짝 놀랄 때만 모든것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 못마땅하다. 그것은 바로 어제 일이었다. 어젠 호텔고, 그가 날 찾아왔고, 무엇보다 그렇게 갑자기, 잊어버리기바로 전에 그가 날 찾아왔다는 사실이 역울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었다. 『우리 현실적인 얘기를 해요. 네? 현실적이고 가능한 얘기말예요』 그런데내가 여행을 하겠다고 말한게언제였지? 이말을 한 훈간, 전인가? 그런데 그는 항상 날 당황하게 만들고야만다. 그의 대답은 『음, 해봐』였던 것이다. 나는 곧 후회하고 말았다. 새로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나는 이미 복종을 기억해냈기 때문이다. 조금씩 내 몸을 침식해 들어온 그의 몇가지 말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표정, 그보다 또 기억하고있었다. 그리고 나는 얼마 후 기분이 끝없이 상해버렸다.

영터리같은 질문이었어. 그리고 나는 좀더 절제할줄 알았어야했어. 내가 아는 사람은 몽땅 죽어버렸으며 좋겠다고 생각했을 정도니까. 그런데 알았어야 했다구? 그래야만 했다구? 그래도 좋았고 안그래도 좋았다고 생각할 순 없을까? 나는 내가 아직 분명한 권태를 몰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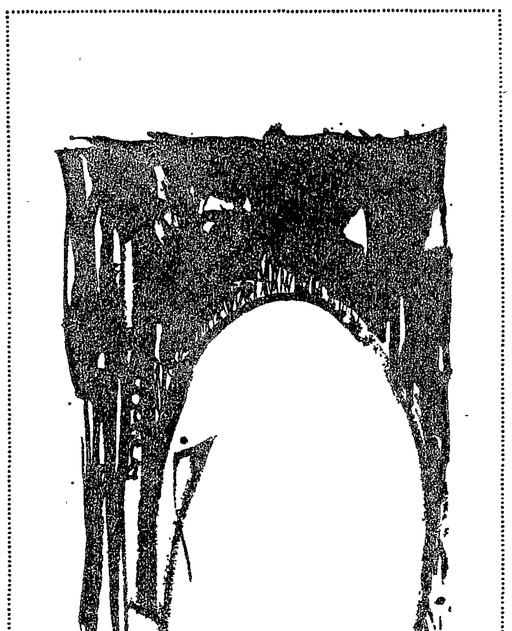
『소설을 하나 모방했다』 『응모했다』 『당선됐다』 이것 외에 생각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입선소식을 들은 직후엔 마치 모험을 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이제 그런 기분은 없다. 지금 나는 「입선소감」이라는 말의 뜻조차 모르겠다. 역시 그렇다! 사전은 없었다. 다만 누구의 것도 같지 않은 몇개의 말이 있었을 뿐이다.

하나의 일이 시작되면 『시작이 있다』라고를 말한다. 끝나면 『끝이 있다』라고를 말한다. 순간마다 정말 그렇기나 한듯이. 그러나 지속성을 갖는 유일한 것이 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작품을 쓴다는 것은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신을 권태에서 몰아내며, 또한 자유롭게 하는가. 그야말로 살게 하는가!

△57年生 △75年 淑明女高卒△現·哲學科 2年

人選所感



예남 맞추기위해 한간힘을쓰고있다. 내가 약속이나 어떤 변변찮은 이유에 못할 것같을 땐 당장 집식하여 술이 끓어버리고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천구니없게도 그때에는 모든 활일을 잊어버리고 마치 나는 갑짝 놀란 표정으로 정신없이 왔다갔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때는 하루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 한번은 약속 장소와 산책중에 나는 결국 심하게 피로해져, 토하고싶은 담담증을 안고 약속장소에 가고말았다. 도대체 내겐 투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내게 부제한은 항상 부정일 뿐이다. 지금 나는 진실이나 허위 어느쪽에도 관심이 없다.

그는 관심이 없고, 그 당연할 뿐인 장소가 끔찍스러웠다. 나는 생각했었다. 모든것은 현손하며, 현실은 이 무지한 당연성이라고. 사실 현실과 현실감은 가장 동떨어진 언어다. 그 후로 나는 여행에서 아파트로 돌아갈뿐 꼭 아파트의 모습을 미리 지금 내 아파트는 얼마나 큰 그런데 미리 속여있기에 나를 거부하는 것일까? 혹 내 방은 그에 의하여 점탈당하고 있진 않을까? 겁탈! 나는 아주 섬뜩하였다. 내 몸안에 있는 천근 무게의 물체가 지금 어둠에 은폐된 사물들과는 다른 위협하게 절망하게 한다면, 그 물체는 바로 그의 고정된 그를 겁탈라면, 그리고 역시 나라면 그를 겁탈하고 말리라. 그를 겁탈하여 그도 역시 허망한 사물로 만들어 버리리라. 겁탈은 그를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곧 애정이나 원한을 줄 필요가없는 쾌락의 한 사물로 펼어뜨릴 것이다. 남자들은 사랑을 얻기위한 것이기라도 한듯이 나와의 성행위를 광적으로 바랬고, 나는 그들에 대한 착각의 잠박성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수단으로 그들을 수탁했고, 마침내 나는 그들을 내게서 떨어져 재빨리 무너져가는 거치른 사물들로 전락시킬 수 있었던것이다. 내 계산은 항상 맞아들어갔고 나는 숙리감과 불쾌감으로 한동안 혼자만의 쾌락을 즐길 수 있었다. 나와 잠자리를 같이한 남자들은 내가 소설을 쓰는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며 가소설가라는 것을 안는 남자들은 나의 빈번한 성행위를 결코 알아낼 수 없었다. 그들은 아무것에도 춘비되어있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항상 그들 주위의 모든 것은 정상이라는 그래, 나는 그들을 겁탈하겠다. 그들을 결국 내가 겁탈했듯이 그들 겁탈하고 말겠다. 그리하여 내 안에 있는 물체의 정체를 제쳐놓고말겠다. 때려눕히겠다. 나는 엄청난 도박을 꾸미고 있는 광과도 같은 기분으로 계획에 몰두했다. 어떤 식으로 그의 정신을 흐트려놓고 그를 유인할까? 거리는 혼란스럽기만했다. 지나는 버스는 전부 만원이었다. 정류장은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로 빈틈이 없었다. 그러나 거리는 내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했다. 나는 거리에 나를 맡길 수 없었다. 나는 택시타는 것도 부제한이다. 그리고 그는 내게 극도로 부제한하다.

원고지엔 무제한이란 말말만 적혀있었다. 시계는 세시반을 가리켰다. 그때 노크소리가 나서 순간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러나 곧 우울해졌다. 나는 그가 초인처럼 날 찾아오길 기다리고있었던 것이다. 호텔보이는 내가 음식값을 치룬 후 거스름돈을 팁으로 주자 재빨리 나갔다. 그를 피해와서 다시 그를 기다린다니. 이정도로 숨겨와서 나는 얼만큼의 비밀을 얻어냈다는 것일까? 대체 우리들의 속성이란게 속임이외에 무엇이 있을까? 모두가 무엇에든 속지않기 위해 미리 자신을, 그리고 타인을 속이려들고, 차라리 접근조차 않는 마땅에 비열이나 메마름이니 이따위 말들이 무슨 통탄할 이유가 있단 말인가. 사랑의 통금해제! 아, 아무래도 좋은것 아니냐. 사랑이 지옥이나 천당에서 마땅하다해도 그렇다. 그런데 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그의 무엇을? 답지 그를? 나는 그를 질투라도 하고있는 것일까? 무엇때문에? 그는 한번도 고통스러워 보인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도 실수하지않기 때문에? 질투일지도 모른다. 실지로 사랑이라는 것이 질투 외에 아무것도 끌려들어왔을까? 어쨌든 그는 내 몸안에 있으니까. 그를 자리잡고 있는 피로하여 자리에 앉고 말았다. 어중엽 원이 와서 메뉴를 탁자위에 펴놓자 나중에 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물을 갖다달라고 말하기도 전에가 버렸고, 그녀가 다시 내 옆을 지나가게 됐을 때도 나는 물을 달라고 말할 기회를 놓쳤다. 나는 점점 더 목이 말랐다. 바로 옆자리엔 여인들이앉아있었다. 여자가 남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걸고서 그들은 속닥거린 조각폭처럼 보였다. 나는 그들이 음직일 때를 기다렸지만 내가 갈증때문에 밖으로 나올때까지 음직이는것을 보지못했다. 나는 지독한 소음에 가슴이 메였지만 다리가 아프고 앉고 말았다. 어중엽 자리에 앉고 말았다. 어중엽 원이 와서 메뉴를 탁자위에 펴놓자 나는 먹고싶은 생각이 없어져버렸다. 나중에 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물을 갖다달라고 말하기도 전에가 버렸고, 그녀가 다시 내 옆을 지나가게 됐을 때도 나는 물을 달라고 말할 기회를 놓쳤다. 나는 점점 더 목이말랐다. 바로 옆자리엔 여인들이앉아있었다. 여자가 남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걸고서 그들은 속닥거린 조각폭처럼 보였다. 나는 그들이 음직일 때를 기다렸지만 내가 갈증때문에 밖으로 나올때까지 음직이는것을 보지못했다. 나는 지독한 소음에 가슴이 메였지만 다리가 아프고 피로하여